

주간 총현

내가 사랑의 열병을 앞섭니다

나는  
숨조차 크게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날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  
날 가장 사랑하신다는 것!  
나를 향한  
눈물나는 고백에  
내가 사랑의 열병을 앞섭니다.

나는  
한 번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내게는  
한없이 수척스런 세월(歲月),  
아직도 떨치기 힘든 기억들,  
그리하여도  
당신께 안기우고 싶어  
내가 사랑의 열병을 앞섭니다.

그리스도여!  
기억하여 주소서  
내가 사랑의 열병을 앞는 까닭에  
지금,  
옥함을 깨드리고  
그대 발아래 엎드려  
눈물의 애가(愛歌)  
간절히 부르고 있음을!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침수시키  
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  
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  
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그  
자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았으며 향유를 부  
으니 예수께서 칭찬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  
음을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신자더라면 자기  
를 만지는데 이 여자가 주며 어떠한 자 곧 죄  
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눅 7:36-39)

향유를 붙는 여인의 가슴은 얼마나 뛰었을까?  
진정한 사랑을 찾은 그녀는 얼마나 기뻐했을까?  
다 이실 어떤 연인(戀人)도 필요 없는 그녀는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리고 주께서 배부른 사랑을 잊고 사는 우리  
는 얼마나 이기적인가?  
그리스도여,  
당신은 그들로 인하여 진실로 행복하신 하나님  
이시나이다!

창지기 훈련  
5월 16일(수) - 18일(금)

창지기 훈련은  
창지기 훈련은 창지기 훈련을 세우고자 창지기 훈  
련이 실시된다. 체육대회를 통하여 하나가 된 마음은  
마땅히 하나님의 찬만한 말씀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있  
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창현의 모든 성도들은 다음과  
같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길 바란다. 먼저, 강의를  
담당하게 된 위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  
라.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믿  
고 감개에 이르고 성령을 따라 말씀의 씨를 뿌리도록!  
두 번째로는 창지기 훈련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을 위  
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란다. 이번 창지기 훈련을 통해  
서 뿌려진 말씀의 씨가 삶에 통해 열매 맺으며 예수 그리스  
도의 마음을 본받게 되도록! 마지막으로 모든 기  
회와 진행이 착오 없이 잘 준비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다 (창지기훈련에 대한 자세한 일정은 아래와 같다).

| 구분 | 5월 16일(수)              | 5월 17일(목)          | 5월 18일(금)  |
|----|------------------------|--------------------|------------|
| 강사 | 김성관 목사                 | 김성관 목사             | 김성관 목사     |
| 본문 | 요 17:16                | 요 17:18            | 눅 10:21-22 |
| 제목 | 지혜와 세상에 속하지<br>아니하였나이다 | 나도 지혜를<br>주에게 보내었고 | 예수님의 기쁨    |

위임 목사 동정

김성관 위임목사는 미국에서 진행되는 복음 전도를  
위한 세미나 관계로 출국했다. 세미나에 참석하는 동  
안 영혼과 육체의 건강함으로 모든 과정을 유익하게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자.

일꾼 선출

신실한 주의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겐애포 교회의 일꾼이었던 자매 비희(복 16:1), 바울의 사정을 가장 잘 알았  
고 사랑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었던 투기교(엡 6:21),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바울과 함께 종 되었던 사랑하는 에바브라(골 1:7), 그리고 마  
음에게는 믿음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디모데(살전  
3:2)!  
이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해 자신을 내어준 이들이었다.  
그래서 이들의 이름이 바울에 의해 성경에 기록되었고, 성경에 기록된 이들의  
이름은 분명히 하늘의 영광에 기록된 이름일 것이다. 그것은 이들도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로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자신들의 생애의 전부로 여기고 살았기  
때문이었다.  
오늘날에도 이들과처럼 영원한 천국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수많은 이들이로 하  
여 금 복음은 확산되어지고 있다. 추수할 영혼을 바라보시며 고민하시는 하나님의  
단식을 듣는 자,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영혼의 단식을 듣는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응성과 죽어 가는 영혼의 갈급함을 민감하게 느끼고 행동하는 자들에 의해  
서 구원의 생애는 물론 퍼배어지고 있다.  
창현교회와 주의 명령을 따라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  
도하면서 일꾼을 선출하려고 한다. 바울이 성경에 기록했던 일꾼들, 그리고 이  
곳 지구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의 물을 길어내는 생명의 일꾼  
들처럼, 창현교회도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천국의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기도  
하여 선출해야 하지 않겠는가(2001년에 세워질 일꾼 선출에 대한 일정은 아래  
와 같다)

5월 1일은 창현체육대회입니다.  
창현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① 2001년 4월22일(주일) 후보자 공고 (후보자 소개는 4면과 5면에 기재)  
② 2001년 5월 6일(주일) 공동의회 개최(투표)  
③ 2001년 5월13일(주일) 피택자 확정 공고(주간총현에 기재)

여 국 근(목사, 12교구지도)

# But One Thing I Do

(Philippians 3:13~14)

“Brethren, I do not regard myself as having laid hold of it yet;  
but one thing I do: forgetting what lies behind and reaching forward to what lies ahead,  
I press on toward the goal for the prize of the upward call of God in Christ Jesus.”

In our daily life we have so many things on our minds, like appointments, assignments, meetings, projects, reports, schedules, and others various tasks. When we look at Paul, we see that he was a great Christian theologian and apologist, and yet he was so humble. His life was full of duties and responsibilities, and yet he said, “Brethren, I do not regard myself as having laid hold of it yet; but one thing I do” (v. 19). Even though Paul was a faithful servant, strong believer, and obedient follower of Jesus Christ, he makes it clear that he had not “arrived” but was still very much in the race of the Christian life. And in this busy life, he tells us that there is “but one thing” to do. What is this “one” thing?

The book of Philippians reveals Paul's hard life, sufferings, sorrows, and loss of everything! He wrote it while in prison. His love for Jesus Christ made him an enemy of the world. “More than that, I count all things to be loss in view of the surpassing value of knowing Christ Jesus my Lord, for whom I have suffered the loss of all things, and count them but rubbish so that I may gain Christ” (v. 8). Amen! Even though he experienced the loss of all things on one side, on the other side he had wonderful fellowship, peace, grace, intercessory prayer, happiness, sincere rejoicing, and great praising of God. He proclaims the love, faith, hope and joy on top of joy of knowing Jesus. Did you know that he asks us to rejoice in the Lord over thirteen times in this book? Paul calls his people “brethren” and explains the meaning of the crown in today's Bible verses. He is a happy Christian!

Given his circumstances, can you believe it?

When you look at verse 13, Paul closes the door on past things, “forgetting what lies behind”. He forgets what lies behind. Why? Because he wants to join his sufferings in the power of Jesus' resurrection, “that I may know Him and the power of His resurrection, being conformed to His death” (v. 10). That's why Paul chooses not to remember the past. He confessed that he's not perfect, “Not that I have already obtained it or have already become perfect” (v. 12). He's not finished yet, and so he realized that his past life is not standard. It's better to forget it. So often we emphasize our past. You hear people talking all the time, saying “when I was young, I used to...”. What did Paul want to forget? Sins. He wanted to forget his falling. “They shall not teach again, each man his neighbor and each man his brother, saying, ‘Know the Lord’, for they shall all know Me, from the least of them to the greatest of them, declares the Lord, for I will forgive their iniquity, and their sin I will remember no more” (Jer. 31:34). Amen! The Lord declares His forgiveness. Paul believed that. If God forgets, why should you remember? We have a wonderful God, and Paul knew His wonderful grace. He understood, “As far as the east is from the west, So far has He removed our transgressions from us” (Ps. 103:12). So, when we believe this we are encouraged. Our sins try to keep watching over us, they try to make us remember, and they try to make us fail. Forget them, and

remember Paul's words, “but one thing I do”. Amen!

What else did Paul say? He said, “forgetting what lies behind and reaching forward to what lies ahead” (v. 13). So, not only did Paul forget the past but he reached forward. That means he stretched on. The past is not important, Paul focused on the front. Our present reality is important. Now is important. There is no time to be depressed and regretful. Paul pressed on so that he might lay hold of that for which also he was laid hold of by Christ Jesus (see v. 12). Jesus grabbed him and Paul grabbed Jesus. He confessed, “For to me, to live is Christ and to die is gain” (Phil. 1:21). Whether he lived or died, he tightly grabbed on to Jesus. He reached forward in his daily living.

Why did Paul want to forget the past and reach forward? He said, “I press on toward the goal for the prize of the upward call of God in Christ Jesus” (v. 14). Do you realize how much you and I try to reach, in this world, for decaying crowns, reputation, stupid money. For that we try so hard! “Everyone who competes in the games exercises self-control in all things. They then do it to receive a perishable wreath, but we an imperishable” (1 Cor. 9:25). Amen! Paul did it! He was so happy, he explained to Timothy, “in the future there is laid up for me the crown of righteousness, which the Lord, the righteous Judge, will award to me on that day; and not only to me, but also to all who have loved His appearing” (1 Tim. 4:8). What kind of crown is he talking about? Surely not a decaying one, but a righteous one! Who's going to give such crowns?

The Judge—Jesus Christ. He will give Christians the crown of righteousness.

We are all not perfect. We cannot go forward on our own. The Holy Spirit comes into our heart and leads us. The Holy Spirit is the leader. We have to listen and obey, “Do not question the Spirit” (1 Thes. 5:19). Pride quenches the Spirit, “Do not grieve the Holy Spirit of God, by whom you were sealed for the day of redemption” (Eph. 4:30). He bring us to salvation. In other words, we give up everything, we die everyday to our will and way, and let the Holy Spirit lead us to God's will and way. Jesus actually said to all the crowds, “If anyone wishes to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daily and follow Me” (Lk. 9:23). Amen! We cannot do it ourselves, but when we deny ourselves we can do it! Why? Because “all things are possible to him who believes” (Mk. 9:23). Amen! If you believe, only by faith, you can do it!

My dear friends, what is your plan? What are you doing today? Paul said there was but one thing to do: forget the past, go forward, and receive the imperishable and permanent prize. How? Through the Holy Spirit. The Holy Spirit guides us. Deny yourself, deny your pride, and listen. Jesus is alive! He resurrected and is coming back again. He went away to prepare our home. Aren't you excited? Only one thing you need to do and you will be a happy Christian. ■



김성권 목사

## 오직 한 일

(빌 3:13~14)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푼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좇아가노라”

### 바울의 초점

매일 반복되는 생활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는 매우 많은 것들이 자리잡고 있는데, 그것은 입명, 지위, 모임, 계획, 보고, 스케줄,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과제와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바울을 바라볼 때, 그는 위대한 기독교 신학자요 변증가였지만 매우 겸손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의 생애는 의무와 책임으로 가득했지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13절)라고 말합니다. 비록 바울이 신실한 종이었고,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이었으며, 예수께 순종하고 그를 따라가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자신이 아직 다 감당할 것이 아니며, 여전히 신자로서 살아가야 할 인생의 경주가 많이 남아있다고 명백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더없이 모자라는 매우 바쁜 나날 속에서도 바울은 우리에게 자신은 “오직 한(가지) 일”을 좇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난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하고, 그를 집중시키게 하는 “오직 한(가지) 일”이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다 쏟아 붓고라도 반드시 잡으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을 본문을 통해서 발견해 보시길 바랍니다.

### 오직 한(가지) 일

빌립보서는 모든 것을 버림으로 어렵고 고생스러우며 초라해 보이는 바울의 삶에 대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이 편지를 옥중에서 기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는 세상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빌 3:8). 아멘! 비록 한편으로 그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한 편으로만은 놀라운 교제와 평강, 은혜와 중보의 기도, 희락과 참된 기쁨, 소위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찬양을 소유했습니다. 그는 사랑과 믿음, 소망 그리고 예수를 아는 기쁨 위에 기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주님을

기뻐하라고 열 세 번이나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바울은 오늘 이 말씀에서 자신의 사람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며 면류관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행복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으십니까?

### 뒤에 있는 것

본문의 13절에서,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겠다’며 과거의 것들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는 왜 지난날의 것들을 잊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안에서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빌 3:10). 그것이 바로 바울이 과거를 기억하지 않기로 한 이유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지 않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빌 3:12a). 자신의 과거의 삶이 모범이 될 수 없음은 알게 된 바울에게는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과거의 일들을 잊는 것이지만 한 종류 주의를 강조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나도 예전에 그랬었지...”라며 말하는 것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엇을 잊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자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라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지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치 아니하리라. 여호와와 같이”(빌 3:13a). 아멘! 주님은 그의 용서를 선언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잊으시는데, 왜 여러분은 기억하려고 하십니까?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이 계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이해했습니다. “동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으며”(시 103:12).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믿을 때 힘을 얻습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를 자주 감시하고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여 실패하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것들을 잊으십시오. 그리고 “오직 한 일”을 강조하는 바울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 앞에 있는 것

바울은 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빌 3:13). 바울은 과거를 잊은 것뿐만 아니라 미래를 향해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에게 과거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기에 오직 앞만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현재가 중요합니다. 지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여 후회하는 데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좇아가셨습니다(빌 3:12 참고). 예수는 그를 붙잡았고 바울도 예수를 붙잡았습니다. 그의 고백을 들어 보십시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빌 1:21). 살든지 죽든지 바울은 오직 예수를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그는 매일 매일의 삶 속에서 앞으로 전진했습니다.

### 의의 면류관

왜 바울은 과거를 잊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했습니까?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푼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좇아가노라”(14절). 여러분은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의 썩은 면류관들과 명성, 이리혹은 돈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바로 이런 것들을 위해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이끼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질책하나니 저희는 썩은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썩은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도라(고전 9:25).” 아멘! 바울은 승리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기쁨에 한 생애를 다모아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관이 나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딤후 4:8). 어떤 면류관에 대해서

그는 말하고 있습니까? 분명 썩을 것이 아닌, 의의 면류관입니다. 누가 그러한 면류관을 수여하겠습니까?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 성령을 따라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으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인도자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살전 5:19)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께 귀 기울이고 순종하십시오. 고만은 성령을 거스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엡 4:30). 그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우리는 자신의 모든 뜻과 방법을 포기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길로 인도하시도록 의탁해야 합니다. 실제로 예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린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눅 9:23). 아멘!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자신을 부린할 때에는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만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막 9:23). 아멘! 만약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오직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 앞을 향하여

사망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오늘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바울은 오직 한 가지 일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과거를 잊고 앞으로 나아가서 썩지 않을 영원한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여러분 자신과 자존심을 부린하고 예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 예수는 살아 계십니다. 그는 부활하셨으며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거할 곳을 마련하여 가신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오직 한 일”을 통해 여러분은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

## 제34대 장로 후보자 명단

| 추천순위 | 장로 후보자 |
|------|--------|
| 1    | 박철구    |
| 2    | 강철형    |
| 3    | 정청길    |
| 4    | 고제승    |
| 5    | 김영은    |
| 6    | 신상수    |
| 7    | 노영한    |
| 8    | 고승균    |
| 9    | 함철주    |
| 10   | 최지운    |



**박철구**  
나이 62  
교구 12  
지역장 제직회부서기  
번호: 1



**강철형**  
나이 55  
교구 17  
지역장 유년부 부장  
번호: 2



**정청길**  
나이 58  
교구 13  
지역장 초년부 부장  
번호: 3



**고제승**  
나이 54  
교구 6  
지역장 새가족부 부장  
번호: 4



**김영은**  
나이 54  
교구 8  
지역장 제직회 서기  
번호: 5



**신상수**  
나이 56  
교구 14  
지역장 예비다부 부장  
번호: 6



**노영한**  
나이 62  
교구 1  
지역장 소년부 부장  
번호: 7



**고승균**  
나이 52  
교구 3  
지역장 소년부 부장  
번호: 8



**함철주**  
나이 52  
교구 12  
유치부 부장  
번호: 9



**최지운**  
나이 62  
교구 10  
지역장 장년2부 교사  
번호: 10

기도로 미리 준비하시고  
투표에 임합니다.

본 명단의 순서는 당회추천순입니다.

## 제14대 안수집사 후보자 명단



**최상기**  
나이 53  
교구 1  
아펜찬양대  
번호: 1



**김대웅**  
나이 51  
교구 1  
고등부 교사  
번호: 2



**이승득**  
나이 47  
교구 1  
신촌가정부 교사  
번호: 3



**황학규**  
나이 62  
교구 2  
재정위원회  
번호: 4



**박상대**  
나이 51  
교구 2  
남성구역장 고등부 교사  
번호: 5



**이상해**  
나이 47  
교구 2  
1교구 간사  
번호: 6



**박종철**  
나이 48  
교구 3  
아펜찬양대  
번호: 7



**허만선**  
나이 45  
교구 3  
초등부 교사 가브리엘 찬양대  
번호: 8



**문영규**  
나이 44  
교구 3  
남성구역장 장년1부 교사  
번호: 9



**신선길**  
나이 63  
교구 4  
장년1부 교사  
번호: 10



**오순도**  
나이 45  
교구 4  
남성구역장 유년부 교사  
번호: 11



**안상직**  
나이 56  
교구 5  
마울회장  
번호: 12



**전종일**  
나이 44  
교구 5  
소년부 교사  
번호: 13



**조석구**  
나이 66  
교구 6  
남성구역장  
번호: 14



**김영주**  
나이 47  
교구 6  
6교구 간사  
번호: 15



**장길남**  
나이 57  
교구 7  
남성구역장  
번호: 16



**박영기**  
나이 57  
교구 7  
봉사위원회내  
번호: 17



**조증민**  
나이 46  
교구 7  
7교구 간사  
번호: 18



**이정훈**  
나이 59  
교구 8  
남성구역장 장년부 교사  
번호: 19



**김종홍**  
나이 52  
교구 8  
봉사위원회내  
번호: 20



**강영철**  
나이 49  
교구 8  
인쇄실 직원  
번호: 21



**황일선**  
나이 54  
교구 9  
남성구역장 신로암찬양대  
번호: 22



**김연태**  
나이 53  
교구 9  
남성구역장 새가족부 교사  
번호: 23



**강만호**  
나이 57  
교구 10  
남성구역장 장년2부 교사  
번호: 24



**김경환**  
나이 51  
교구 10  
남성구역장 아펜찬양대  
번호: 25

## 안수집사 후보자 명단

|                                                                                                                                              |                                                                                                                                          |                                                                                                                                                 |                                                                                                                                                |                                                                                                                                               |
|----------------------------------------------------------------------------------------------------------------------------------------------|------------------------------------------------------------------------------------------------------------------------------------------|-------------------------------------------------------------------------------------------------------------------------------------------------|------------------------------------------------------------------------------------------------------------------------------------------------|-----------------------------------------------------------------------------------------------------------------------------------------------|
|  <b>김인술</b><br>나이 66<br>교구 11<br>본사 부서 남성구역장 아현관장대<br>번호: 26 |  <b>강정수</b><br>나이 48<br>교구 11<br>본사 부서 남성구역장<br>번호: 27  |  <b>강창식</b><br>나이 50<br>교구 12<br>본사 부서 남성구역장 청년2부 교사<br>번호: 28 |  <b>지규성</b><br>나이 45<br>교구 12<br>본사 부서 남성구역장 대학부 교사<br>번호: 29 |  <b>최준호</b><br>나이 53<br>교구 13<br>본사 부서 남성구역장 청년부교사<br>번호: 30 |
|  <b>강철규</b><br>나이 48<br>교구 13<br>본사 부서 중등1부 교사<br>번호: 31     |  <b>김경식</b><br>나이 58<br>교구 14<br>본사 부서 소망부 교사<br>번호: 32 |  <b>김동욱</b><br>나이 47<br>교구 14<br>본사 부서 고등부 교사<br>번호: 33        |  <b>이강근</b><br>나이 57<br>교구 15<br>본사 부서 남성구역장 에바다부교사<br>번호: 34 |  <b>김수연</b><br>나이 55<br>교구 15<br>본사 부서 사랑부 교사<br>번호: 35      |
|  <b>남용철</b><br>나이 46<br>교구 15<br>본사 부서 15교구 간사<br>번호: 36     |  <b>김장영</b><br>나이 60<br>교구 16<br>본사 부서 재정위원급부<br>번호: 37 |  <b>김병권</b><br>나이 53<br>교구 16<br>본사 부서 에바다부 교사<br>번호: 38       |  <b>박창근</b><br>나이 63<br>교구 17<br>본사 부서 재정위원급부<br>번호: 39       |  <b>김만중</b><br>나이 59<br>교구 17<br>본사 부서 전교구간사<br>번호: 40       |

## 기도로 미리 준비하시고투표에 임합니다.

본 명단의 순서는 교구별, 연령별입니다.

## 구역탐방

## 변함없는 그리스도

5교구 개포1-3구역



어느 새벽처럼 뱀은 힘차게 울리지만 뱀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 순간 생각이 떠오른다. '그래 오늘 구역탐방 가는 날이지. 갔다오면 피곤해서, 에너지가 부족이나 필요한 나의 생업에 지장이 있을테니 오늘 만큼은 새벽예배를 쉼? 아니지 가자.'

은혜의 찬송으로 시작되는 귀한 새벽예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에 말씀에 통해 나의 생각을 하얗게 지워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속의 사울을 세우시며 '새 마음'을 주시는 장면을 생생하게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다.

이런 정화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에 개포1단지를 향한 나의 발걸음은 가볍지 않을 수 없었다. 낯선 대문앞에 붙여진 충현교회라고 쓰여진 교패는 반가운 그 이상이었다. 뱀을 울리며 들어오니 미리 와계신 구역 식구들이 나를 반갑게 맞이주셨다. 유기준 권사님, 남영순 구역장님, 박성순, 이규자, 박정희, 김창욱 집사님과 함께 구역예배를 시작하였다.

'변하는 세상과 변함없는 예수그리스도' 과학, 경제, 가치관, 인간관계, 자연 모든 것이 변하여 밤 불빛에 없는 가련한 우리 현대인들이지만, 개포1-3구역 식구들 각자에게 임한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도는 이들을 이 땅위에 아무런 두려움 없는 진정 당당한 여인들로 세우셨다. 그 예수를 자랑하며 행복해하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열면 은혜의 자리를 정리하고 '이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1:21) 이 말씀이 우리의 출발점이자 목표가 되고자 다짐하며 예배를 마친 후, 교회 새벽예배에 구역원 모두가 동참하고자 서로의 상황을 이야기하며 중보기도를 했다.

봄 햇살처럼 아름다운 오색 나물의 비빔밥과 고소한 부침으로 준비된 점심상은 맑은 은혜를 나누려 애쓰는 정성 그대로였다.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누고 돌아 나오며 동행하신 주님께 속삭였다. '충현교회 구역예배 정말 아름답죠?'

(박영선 기자)

(장애인 주일을 맞이하여)

##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랑부

이주현 (1교구, 사랑부 교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누구나 그분의 귀한 자녀이다. 비록 부족한 모습으로 이 땅에 왔지만 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닌 우리의 형제, 자매이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우리는 예수의 사역 중 많은 부분이 장애인을 고쳐주시는 일임을 알 수 있다. 우리도 예수께서 행하신 사랑의 실천을 본받아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장애인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개념과 이해가 없는 어렵다.

예수께서는 장애인들을 과거의 속명적인 저주의 굴레로부터 해방시키고 그들의 육체와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다.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살 가치와 목표를 부여해 주시고 그들을 소외시키고 있던 사회로 복귀시켜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 장애인들도 만 인격으로 존중되었으며 새로운 존재로 태어날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장애인인가?' 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정확하게 대답하기가 어렵다. 눈에 보이는 장애인만 장애인이라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가 더 큰 장애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에 대한 정의는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달리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의 개념을 정의하는 문제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완전한 신체이든 불완전한 신체이든 모든 생물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게 귀하다. 똑같은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무시하고 외면한 것은 이는 곧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우리는 신체의 장애보다

마음의 장애를 더 두려워 할 줄 알아야 한다.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 이런 원칙 아래에서 장애인들도 신앙생활을 통하여 서로가 상호작용하는 교제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장애인 문제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는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이다. 나와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장애인들은 인격이 무시되고 수 많은 사회적 제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장애인에게 참된 안식과 소망의 장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장애인 주일을 맞이하여, 충현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주일 동안 교회 오는 주일을 손꼽아 기다리는 우리 사랑부 학생들을 사랑하고 기도해 주기를 부탁한다.



# 체육대회 일주일 앞으로

제 1. 4. 12 군구

각 팀은 연습 및 준비에 여념없이  
모든 준비가 예정대로,  
온 교인들의 참여만 남아



그동안 준비해 온 2001 충원체육대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각 분과별로 모든 준비가 마쳐졌고, 각 팀은 팀별로 모여 교회에서 영성  
훈련으로 함께 준비하며 훈련을 하고 있다. 또한 팀별로 준비하는 티셔츠  
와 선물, 응원도구 등도 모든 준비가 끝났다.

오늘은 오후 3시 갈릴리움에서 경기진행에 대한 설명회와 심판 판정요령  
과 전체 진행에 대한 설명회를 갖는다. 각 팀의 임원 및 선수들은 반드시

참석해야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고는요령을 터득 할 것이다. 체육대회 전  
체개요와 행사진행 요령과 운동장 배치도는 아래와 같다.

## 오늘 오후 3시 갈릴리움에서 경기설명회로 모입니다

참석대상

- 각팀 단장, 부단장 및 임원 - 경기감독, 응원단장 - 출전선수 전원

## ● 2001 충원체육대회 전체 개요 및 행사진행 요령

### 사전 준비사항

- \* 당일에 전 교인은 오전 9시까지 행사장에 도착하여 각 팀의 좌석에 앉는다.
- \* 외국인선교부는 4개팀에 나라별로 소속한다. 한 팀당 20~30명 정도 예상됨.  
- 믿음팀 / 중국, 스리랑카, 인도 - 소망팀 /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이란  
- 사랑팀 / 몽골 - 충성팀 / CIS(독립국가 연합)
- \* 간단한 먹거리를 판매하는 매점을 운영한다.
- \* 각 팀에서는 팀 구호나 팀 포시를 위한 현수막을 하나씩 제작하여 게양한다.
- \* 당일 수도전기공고에는 <행사차량>이란 스티커를 사전에 발부 받은 차량만 출입할 수 있다.
- \* 종합 총점수는 2000점으로 10 경기 중목당 100점씩 해서 1000점, 동원 및  
응원이 각 400점, 자연보호 200점이다.

### 행사전 준비 / 선수 입장(09:00~09:30)

※당일 선수입장에 해당하는 사람은 오전 8시 50분까지 실내체육관 앞쪽에 각 팀별 준비를 한다.

1. 팀별 집합, 좌석 배치, 인원 점검, 응원도구 지급, 입장식 준비 및 정렬.
2. 팀별 대표선수단 입장(방송 안내에 따라 입장하여 정렬)  
- 입장순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회 피켓걸(민음경, 3교구)  
2) 대회기(안성현, 정창길, 박승길, 임창식, 이부성, 김문섭, 안병호, 이병영)  
3) 본부 임원 입장(진행요원, 심판요원 중심으로)
- 4) 각 팀 입장  
- 피켓걸→ 단장→ 임원(부단장, 총감독, 경기감독)→ 선수단(십자가 군병 선수 200명)  
- 믿음, 소망, 사랑, 충성팀 순으로 입장하여 본부석에서 보아 좌에서 우로 믿음, 소망,  
사랑, 충성팀 순으로 정렬  
- 운동장에 각 팀별 200명씩 10열 종대로 정렬

### 개회 예배(09:30~10:00)

- 사회 / 이병학 장로(진행위원장)
- 기도 / 노광현 장로(준비위원장)
- 메시지 및 축도 / 김성관 목사(대회장)

### 개회식 및 응원전(10:00~10:30)

- 사회 / 차신복 장로(진행부장)
- 개회선언 / 김성관 목사(대회장)
- 선수선서 / 남 : 정종현(믿음팀) 여 : 임은미(소망팀)
- 심판선서 / 원용길 장로 (심판분과장)
- 전체 경기진행 담당자(전송훈 집사) 소개 /  
이하는 전송훈 집사가 운동장에서 진행 지휘  
한 바퀴 행진한 뒤 제자리로  
방송단은 이 때부터 방송음악, 해설, 진행안내 등에 들어간다.  
(방송팀 / 황의만, 박성민)
- 진행분과 요원과 심판분과 요원은 첫 경기 준비단계로 들어간다.
- 각 팀은 선수단이 행진하는 동안 자유롭게 응원 전개.

### 오전 경기진행 (10:30~12:00)

1. 십자가 군병
2. 매거리 축구
3. 농구(매거리 축구와 동시 진행)
4. 어깨동무 릴레이
5. 0x퀴즈

### 점심시간 (12:00~13:00)

- 점심은 각자가 준비해 가지고 와서 구역별, 지역별로 함께 한다.
- 교역자와 요한전도회의 친선축구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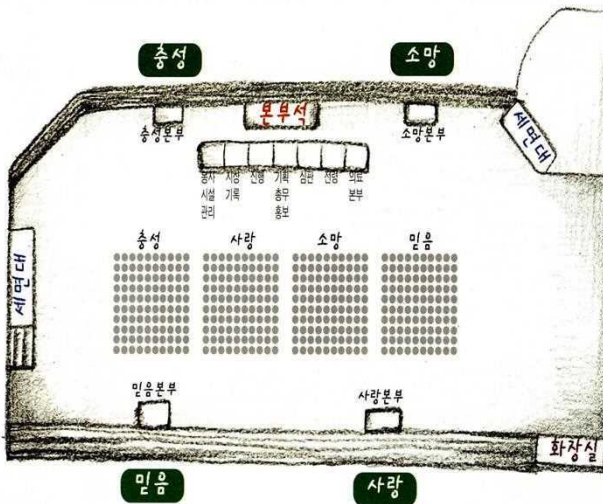
### 오후 경기진행 (13:00~16:00)

6. 피라미드 쌓기
7. 장애물 경기
8. 바람잡는 투궁대
9. 응원전
10. 굴렁쇠 릴레이
11. 줄다리기
12. 400m 계주
13. 자연보호

### 폐회식(16:00~16:30)

- 전교인은 소지품을 가지고 운동장에 정렬(각 팀 위치는 개회식 때와 동일),  
피켓걸, 단장, 총감독은 앞에  
- 사회 / 이병학 장로(진행위원장)  
- 성적발표 / 서동석 장로(경기본부장)  
- 종합 시상 / 김성관 목사(대회장)  
- 말씀, 기도 / 김성관 목사(대회장)  
- 폐회선언 / 김성관 목사(대회장)  
- 상품 배부, 장내 정리 및 해산

\* 각 분과별 임원은 교회에서 가져온 물품을 교회까지 운반하여  
원래의 자리에 갖다 놓고 해산한다.



##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조승현 (사랑부 교사)



조승현 집사

"내가 노레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굵이 있는 황소를 드림과도 이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 라"(사69:30-31)."

나는 아내(김현아 권장)와 함께 사랑부에서 교사로 봉사하고 있다. 우리가 봉사하는 사랑부는 정신지체 장애인들과 선생님들이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경을 공부하는 부서이다. 아내는 1998년 10월 부터 사랑부에서 봉사해왔고 나는 1999년부터 사랑부에서 봉사하여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 나는 학생을 담임하고 있으며 아내는 사랑부 교육과정으로서 많은 일을 즐기하며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 가끔 피곤할 때도 있었지만, 그렇게 즐겁게 봉사하던 중 어느날이었다. 부활절 행사, 장애인 주일 특별찬양, 장애인 초청 전도 잔치 등 제법 중요한 사랑부 행사들을 앞두고서 아내가 몸이 아파서 한양대학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이 자리를 빌어 말하지만 결혼생활을 하면서 내가 아내의 건강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것은 사실이다. 아내는 평소 손발이 자주 붓고 피곤하다고 말했는데 나는 이것을 보통 여자들에게 흔히 오는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런데 아내가 병원에서 검진받은 결과로 나온 병명은 루푸스라고 하는 희귀한 병이었다. 나는 이 질병에 대해서 처음 들었기에 무척이나 생소했다. 아내에게 이 루푸스라는 병이 있다는 것을 알고나서 의사선생님들에서 하시는 말씀은 이 병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진 바가 없으며 따라서 루푸스라는 병에 알맞은 근본치료약도 없다는 것이었다. 루푸스(자가면역결집증)라는 증상이 참 무서운 질병이라는 것은 아내가 입원한 병원에 있는 환자들을 보면서 실감했다.

감사한 마음으로 사랑부에서 봉사하는 아내에게 이러한 병이 있어왔다는 사실이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고 받아 들이지지 않았다.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와야 하는가? 하며 자칫 하나님을 원망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이때도 우리를 사랑하시어 은혜를 주셨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허락하시고 시험당할 때 피할 길을 예비하여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내와 내가 힘을 때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조금씩 인도하여 주셨다.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하시며 아내와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이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많은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를 받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을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더욱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주셨다.

그렇다.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도 바리 될 것이라고 하신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나니 이제 내 마음속에는 평안이 오기 시작했다. 아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사랑부에서는 합심하여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며 문헌을 보았다. 그 병에 아내를 전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며 기도해서 나온 형제, 자매들의 사랑과 위로는 우리에게 힘이 되었다. 이러한 격려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는 경과가 좋아져 3주만에 퇴원하였다.

어려운 시간이 될 뻔 하였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많은 분들의 기도로 인해서 승리하게 된 시간들이었다. 이제 우리 부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담대해짐을 느낀다. 앞으로 살아가는 길에 어떤 발달상황이 일어날 지 알 수 없지만 그럴수록 아내와 나는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조승현 집사의 아내인 김현아 권장



## 한 공동체 안에서

### 이해와 사랑으로자신을 만들어가며

이수현 (에바다부 교사)

#### 늘상 부족하지만 내

선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려던 모습이 주님의 은혜로 섬김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조금씩 깨닫게 되어 바뀌게 되었다.

사정이 여의치 않아 오랫동안 봉사를 하고 있던 나는 몸과 마음이 더욱 더 곤비해져 가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에바다부로 오게 됨은 주님의 인도하심과 생각한다.

처음에는 수화를 할 줄 몰라 어색하고 무척 답답했지만 주위의 많은 분들이 이러한 나를 에바다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도와 주셨다. 무엇보다 화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에 맞춰 부서에 오게되면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드는 것은 목사의 말씀과 그의 모든 분들의 이해와 사랑이 마음대로 다가왔기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개개인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서로가 노력한다면 이런 마음들이 화합하여 선을 이룰 것이고 생각된다. 물론 입과 귀가 불편하여 답답할 수도 있지만, 눈빛으로 전해지는 서로의 마음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됨을 실감한다.

한 공동체가 서로의 이해와 사랑으로 다가가면 그 부서는 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리라 믿는다. 그러기에 오늘도 주 안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어 가게 되길 기도한다.



#### 잠언의 생

### 잠언(Proverbs)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지나 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삶 속에 적용되는 잠언의 목적을 기억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1장 2절-5절에 그 목적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훈계를 알기 하라! 즉, '참조자'가 정한대로 삶을 영위하는 습관을 소유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총 915개의 구절로 된 실제적인 지침들은 '하리'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숫자상으로 거의 동등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두 가지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선을 실천하는 헌신을 위해서 때때로 바른 삶을 살아가는 길을 거부하는 결단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이기는 것이요, 그러므로 잠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 원치 않는 것들을 구분 지으면서 오히려 즐기고 사랑받으십시오.

그러나 잠언을 읽고 적용하면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잠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해하고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에 기록된 지혜들은 매력적인 말이나 도덕, 율법이 아닙니다. 그 대신, 잠언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온 경험을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의 자녀들이 성경적 사고의 틀 안에서 살아가야 할 믿음의 삶을 제시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바리 잠언이 실천적인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만 신학적인 중요성이 없습니다. 그것은 참조자로 인도되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특별히 나타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지혜'를 의인화시킨 것이요, 그러므로 잠언을 읽으실 때는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낸 지혜, 즉 성경적 지혜를 염두에 두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지혜의 말씀'의 진정한 기록자이신 '지혜'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서 그의 뜻을 깨닫고 영예 속으로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참, 그리고 보니 '잠언'이라는 이름이 가진 의미에 대해 살펴보지 못했군요. 영어로는 'Proverbs'라고 하며, 일반적인 의미로는 '거르쳐서 혼계하는 말' 또는 충고, 격려 등을 넣은 짧은 격언으로 '잠언', '금언', '교훈'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잠언 22:17절에는 '지혜'라는 자의 말씀'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잠언을 묵상할 때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죄를 이기고 절절한 삶으로 인도할 받는 열매를 살을 사시길 바랍니다.

(김동환 목사·출판국 지도)

####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 그리스도를 아는 밤세

언뜻 스치기는 한 순간의 잊혀지지 않는 감동을 붙잡는다.

부활절을 보낸 월요일, 대학원으로 내려가기 위해 경부 고속도로를 뒀다. 차창을 향해 들어오는 봄 햇살의 따스함에 잠시나마 여유를 느끼고 있을 즈음이었다. 언제 달아놓았는지 고속도로변으로 끌고 붙어 있지 않는 오색의 연등이 눈에 들어왔다. '아, 석가탄신일이구나...' 5월 1일은 교회 재충전회가 있는 날이라 생각했던 나에게 연등은 석가탄신일이 다가왔음을 알려주었다.

그러나 '탄신'이라는 말이 자주 났다. 존경의 개념이 발달된 한글로 인해 이런 경우 난감하지 않을 수 없다. '님' 자를 붙이는 것 또한 그 대상을 존경한다는 의미임을 고려한다면 내가 존경하지 않는 대상에 어떻게 불러야 하는가? 언젠가 '스님'을 '스'라고 부르던 친구의 모습이 기억난다.

초등학교 시절,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미술시간에는 항상 카드를 만들었다. 기독교인이 아닌 아이들도 만들기에 혈안이 될 때마다 크리스마스 카드는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그 시간 짜깁고 딸다툼이 시작되었다. '야, 내 교회도 안 다니면서 왜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고 성탄절에 놓아?' 내 생각에 성탄절이 기독교인들의 축제일이야 했기에 그 질문은 사뭇 정당한 것이었다. 그런데 딱딱의 대답에 난 할 말이 없었다. '너도 석가탄신에 놀잖아'

문득 고린도 교회사에 우상의 제물을 위하여 먹는 것의 정당성에 관한 논의가 생각나 고린도전서 8장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러한 문제를 이교도의 자유함을 말하나, 9절에 이르러 이를 다는 차원으로 끌어간다.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석가탄신, 나는 분명 그날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인해 자유할 것이다. 그러나 걸려있는 연등만큼이나 많은, 이 땅에 죽어가는 잃은 영혼으로 인해 가슴 아파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므로 이날 '너는 이제 석가탄신에 기뻐하느냐'는 질문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말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 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내 모습을 기대한다(고후2:14,15).

(박철호 전도사)

